

한문맥(漢文脈)의 근대와 순수언어의 꿈*

-한국 근대 개념어 연구의 과제-

황 호 덕**

1. 정체와 언어-대한민국헌법과 한문자 지배력의 임계(臨界)

한 국가의 기본적 조직원칙을 이루는 원리와 관행의 체계를 헌법이라 부른다. 다음은 대한민국헌법의 전문이다.

大韓民國憲法

前文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3·1運動으로 建立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과 不義에 抗拒한 4·19民主理念을 계승하고,

* 이 글은 두 차례의 학술대회, <제16회 한국근대문학학회 학술대회:근대계몽기 서사와 신시의 재현성>과 <第5回東京大学東洋文化研究所・成均館大学東アジア学院共同セミナー: 語彙から考える-東アジアの近代>에서 발표되었다. 이 자리를 통해, 글의 수정과 차후의 연구에 도움을 주신 임상석(고려대학교), 야스다 토시아키(安田敏郎, 一橋大学) 두 분 토론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또한, 이 글은 본 『한국근대문학연구』 제16호(2007.10) 게재된 후, 한국번역비평학회의 후의와 허락을 얻어, 대폭 수정된 형태로 비정기 무크지 『번역비평』(2007년 11~12월 중, 고려대학교출판부 간행)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여기에 위와 같은 사실을 밝혀,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祖國의 民主改革과 平和의 統一의 使命에 입각하여 正義・人道와 同胞
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공고히 하고, 모든 社會의 弊習과 不義를 타파하
며, 自律과 調和를 바탕으로 自由民主의 基本秩序를 더욱 확고히 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균등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발휘하게 하며, 自由와 權利에 따르는 責任과 義
務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均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世界平和와 人類共榮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
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年 7月
12日에 制定되고 8次에 걸쳐 改正된 憲法을 이제 國會의 議決을 거쳐 國
民投票에 의하여 改正한다. [전문개정 1987.10.29 헌법 10호]

대한민국의 최대 베스트셀러 중 하나일 법전의 문체는 여전히 한국 근
대 형성기의 국한문체를 연상시킬 정도로 수많은 한자로 뒤덮혀 있다.
(전문 전체가 현대 한글의 문장 분절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하나의’ 문
장임에도 유의하자) 헌법의 이념상 사소한 자구 수정에도 국민투표가 필
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헌법개정을 요하는 국가적 변화가 존재하
지 않는 한, 대한민국헌법, 즉 대한민국의 기본적 조직원칙은 이러한 국
한문체로 표현된 언설의 공간을 근원적으로 이탈하기는 힘들 것이다. 어
떤 의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의 조직원칙과 원리, 이념은 한문과
한자를 둘러싼 문맥들의 교차점 혹은 접촉면에서 발생한 것일지도 모르
며, 그렇다고 할 때 대한민국헌법을 관류하는 이 문맥(文脈≠context)은
여전히 근현대 한국인의 문자생활과 언어 질서를 이해하는 단초가 된다.

대한민국이라는 정체를 표상하는 미디어가 한글과 한문의 접촉면에서
성립되었다고 한다면, 오늘과 같이 한글화된 한국인들의 삶에도 여전히
한문의 법적인 구속력 혹은 문화적 무게는 무시할 수 없는 요소로서 자리
잡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오늘의 한국인은 漢‘文’을 사용하고
있지도 않고, 한문의 독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한문이라는 서기체계écriture 자체는 이미 문헌학적 대상으로 멀어져가고 있다고 말해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자어 사용에 있어서 실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권위의 원천으로서의 한문이라는 상위 언어체계)임도 분명하다. 한문이나 한자가 점차 표상권에서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구성한 질서는 한국어에 있어 일종의 은폐된 기원으로서 계속 의식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요컨대 100년 혹은 560년이 넘는 국문(國文)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한문맥(漢文脈)²⁾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적어도 국문이라는 문맥=컨텍스트 안에 한문의 아우라가 좀처럼 지워질 수 없는 형태로 살아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지 않을까.

그러나 이 자리에서, 내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여전히 한문의 권위가 살

-
- 1) 김우창, 『언어·사회·문체』, 『김우창전집3: 시인의 보석』, 1993, 280면. 김우창은 한자어가 문제시되는 이유로 그것이 문화정치적 상황을 검토하는 중요한 입사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우리말에 도착어와 한자어가 섞이지 않는 층이 있다면, 이것은 단순한 음성적 현상이 아니라 한자문화에 대한 예측현상, 곧 문화적 정치적 현상인 것이다. 어떤 외래어의 경우도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빌려온 외래어의 기원이 기억되는 한 기원의 권위가 수용언어에 구속력을 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위의 책, 281면.
 - 2) 여행기를 대상으로 한 일련의 줄고들에 대한 사이토 마레스(齋藤稀史)의 지적을 통해 나는 서구를 한시문(漢詩文)으로 재현하는 문제와 이들의 사유나 글쓰기가 가진 ‘근대적’ 측면과 현재성을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무엇보다 한문의 문제를 문체, 소양, 번역, 의식과 같은 “한문으로부터 파생된 언설 질서의 총체”- ‘한문맥(漢文脈)’의 관점에서 정의하는 그의 입론은, 양상은 다르지만 한국의 근대 문학/언설을 해명하는 데에도 얼마간의 중요한 시준점이 되리라 믿어졌다. (齋藤稀史, 『漢文脈と近代日本』, 日本放送出版協會, 2007, 또 齋藤稀史, 『漢文脈の近代-清末=明治の文学圈』, 名古屋大学出版会, 2005를 참조) 어휘와 문체·사회를 포함한 한국에 있어서의 문명어의 문맥, 일본전문이 아닌 서구여행기의 속성에 대한 그의 질문이 나에게 이 시론적 글을 구성하게 했다. 아울러, 근대형성기의 표상 체계에 대한 줄거(『근대네이션과 그 표상들』, 소명출판, 2005)를 평해 준 권보드래의 비판적 평문을 통해 나는, 국한문체에서 한글문체로의 이행이 ‘결과적’으로는 진전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필연적인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해 보자는 이 책 최초의 가설로 돌아가 볼 수 있게 되었다. 권보드래, 『문학의 과거와 문학 연구의 미래』, 『사이/間/SAI』 창간호,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06.11.

아 있음을 강변하기 위함도, 한자혼용과 한글전용론을 둘러싼 전통과 민주 사이의 해묵은 충돌의 도화선을 재점화시키기 위함도 아니다.³⁾ 더구나 ‘우리말’로 사유하고 철학하자는 표어를 산출하기 위함은 더욱 아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발생론적 사유와 언어에 대한 이해 없이는 새로운 사유란 결국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이다. 비록 그것이 번역어와 한적(漢籍)들의 수염뿌리 안에서 한 가닥의 뿌리를 잡는 일이 되거나, 역사의 단서들을 무한히 소급해가는 무망한 용례집 만들기처럼 되어버리더라도 그것이 그렇다.

만약 하나의 사회, 특히 정체(政體)라는 것이 여하한 변동에 있어서도 그것이 무너지는 최후까지 안정성을 유지하는 무엇이라면, 그리고 그 안정성의 기초가 되고 힘이 되는 강제력이 법(의 언어)⁴⁾라면, ‘법률 한글화’

3) 오해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 말하건대 필자로서는, 에크리튀르 차원에서의 한글의 승리를 인정할 뿐 아니라, 중요한 이데올로기적 투쟁의 성과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한글 안에는 국수(國粹)의 흔적과 함께, 주체 구성에 있어서의 저항의 역사, 민주적 공론장 구성에의 노력들이 각인되어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 저항은 내적으로는 민주와 평등을, 외적으로는 식민성의 극복을 주창했다. 그러나 만약 한문맥(漢文脈)과 전통/보수를 직접 연결시켜 세대/교양/부/권위의 동체(同體)를 강화하려는 힘의 크기가 좀 더 적었다면, 또 식민지화를 통한 한글/조선문학의 가상(假想) 정부적 기능이 이처럼 강조되지 않았다면, 결과적으로는 한자를 포함시키는 체계가 기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반드시 반동적 결과를 낳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문이라는 상위 체계의 잠재력에 기초한 한자의 개념 생산능력이나 설명력, 기술적 용이성을 극대화시켜, 이를 통해 문명론에 맞서는 유길준 등의 문화적 기획이 헤게모니를 획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4) “enforce the law”라는 영어표현처럼 법이란 언제나 강제, 즉 폭력을 전제하며, 또 그것에 기초해 운용된다. 벤야민은 전제를 법정립적 폭력이라 불렀고, 그 운용을 법유지적 폭력이라 불렀다. 자크 데리다, 『법의 힘』, 진태원 옮김, 문학과지성사, 2004, 15면. 1947년의 시점에서 헌법학자 유진오(兪鎭午)는 이미 이렇게 썼다. (그는 식민지말의 대표적 문학가이기도 했다.) “혁명이란 법과 힘의 충돌이 아니라 구 법체계에 대한 신 법체계의 대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니 법학도는 별로 비판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유진오, 『법과 힘』, 『고대신문』, 1947년 11월. 유진오 『헌법의 기초이론』, 명세당, 1950, 240면에서 인용. 어떤 의미에서 만약 근대법이 한자와 함께 오고 그 상위체계로서의 한문의 아우라에 의존했다고 한다면, 한자의 추방이란 근본적으로 새로운 레짐이 구성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한자를 법과

가 사회적 이슈로서 제기되는 오늘⁵⁾에 있어 한자와 그것을 포괄하는 한문의 아우라는 일종의 임계점에 와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한글의 광범한 사용은 환영할 만한 일이고, 또 담론적 실천에서 한글론이 행해 온 역할 역시 중요하다. 또 이러한 한글화의 과정이, 번역적 재현과 일국(一國) 문어의 형성이라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사정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언어를 ‘청산’할 수 있다고 믿는 사고는, 사유가 의식에 직접 줄 수 없는 것을 당위와 윤리, 정치의 차원에서 쉽게 획득했다고 믿게 한다. 실제로 각종 정부 문서와 시행문들에는 번역의 과정이 생략된 영어들이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한글화의 과정 속에서 근대 한국어의 기원은 은폐되고, 언어는 그 내포를 모호하게 둔 채 운용되고 있다. 그 속에서, 법의 언어는 더욱 한자의 구성-한문맥(漢文脈) 자체의 설명적 기능에 집착하고 있다. 법률한글화를 반대하는 대부분의 논자들이, 한자의 설명적 기능이 법적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반면, 법률 한글화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법률 생활의 민주화와 일제 잔재 청산을 그 의의로 들고 있는 것이다. 일단 언어생활과 법률생활의 민주화와 편의, 일제 잔재 청산이라는 명분론을 그것 자체로 인정하는 한에서 이야기를 사유의 국면으로 한정해 볼 때, 상황은 그리 간명한 것이 아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청산’과 표음화의 과정이 근대 한국의 언어질서를 구성해온 힘과 과정까지를 청산해버리는 여외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까닭이다. 근과거로서의 일

공론으로부터 추방하는 일종의 법정립적 폭력Gewalt은 이 레짐의 완성 혹은 역사적 절단성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 5) 예컨대, “이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단순히 법령문의 표기를 한글로 하는 차원을 넘어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 투 용어나 표현, 지나치게 줄여 쓴 용어 등을 쉬운 우리말 용어로 바꾸고, 나아가 복잡하고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법령문을 간결하고 올바르게 다듬어 국민이 우리 법령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업이다.” 『법제처 보도자료』, 2006년 11월 28일 배포분, 6면.

본어의 용례와 성립 과정, 그것을 구성한 최종원인으로서의 서구적 근대와 번역적 재현을 고려하지 않는 한, 한자의 설명력에 대한 강조란 허구적이고 안이한 언설에 그친다. 한문이나 한자는 청산의 대상일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청산의 대상 되고 있다는 바로 그 이유로 인해 한문맥(漢文脈)의 문제는 오히려 더 중요성을 발한다. 왜냐하면 근대 한자어의 설명력은 한자 간의 결합이라는 틀 안에서는 해소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한문을 둘러싼 문화 담론의 배후에 이미 ‘문명’의 번역적 재현 과정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2. 한문맥(漢文脈)이라는 논제-‘漢文’脈과 漢‘文脈’

앞서 한문맥(漢文脈)이라는 말을 했다. 왜 한문이나 한자가 아니라 한문맥(漢文脈)인가. 여기서 염두에 두고 있는 한문맥(漢文脈)이란, 한문으로부터 파생한 문체를 중심으로 하여, 한문적인 사고와 감각, 세계관까지를 포괄적으로 문제삼을 때 제기되는 개념을 뜻한다. 문장이나 詩文의 차원 뿐 아니라, 한문이라는 상위 체계에 의해 구성된 형태소와 단어·통사론까지를 포함하는 컨텍스트를 고려할 경우, 우리는 한문맥(漢文脈)을 ‘漢文’脈 혹은 漢‘文脈’ 양자의 의미로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통사론적 연결과 개념적 접합을 동시에 수행하는 한자의 개념생산 능력—즉 한문이 가진 잠재성 혹은 능산(能散, puissance/potentia)적 국면을 포함하는 어떤 것으로 한문맥(漢文脈)의 의미를 정의해 보는 일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⁶⁾ 앞서도 말했듯이, 한자어 사용에 있어서 그 사

6) 사이토 마레스는 일본어에는 한자와 한시문을 핵으로 하여 생겨난 세계가 있고, 한문의 소양과 한문조(漢文調)라는 서기체계(書記體系)가 이 세계의 중요한 부분임을 전제한다. 나아가 그는 한문이 파생시킨 역사의 흐름과 너비를 중시할 때, “한자와 한시문을 핵으로 전개된 말의 세계를 일단 한문맥(漢文脈)이라고 부르고”, 이를 지역성과 시대성 속에서 보다 넓게 사고해 보는 일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제안하고 있다, 왜냐하면 한문맥(漢文脈)이라는 문제 설정 속에서만 비로소 문화

용을 추동하는 힘은, 이해의 편의나 개념의 확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순간에조차, 권위의 원천으로서의 한문이라는 상위 언어체계와 그것이 환기시키는 아우라에 의존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의 경우, 근대 한자어(신조어)는 신문명어의 경우에 있어서, 그 상위 언어체계로서 일본어의 문제 역시 중대한 고려의 대상이 된다. (물론 근대형성기와 계몽기를 통해 강력하게 작용한 중국의 영향을 그것대로 새로운 검토를 요하는 문제일 것이다.) 많은 경우 이들 신문명어가 단어와 문장 수준을 넘어 언설과 서사 자체를 구성하기도 하는 것처럼 보인다.

다시 말해, 이 한문맥(漢文脈)이라는 텍스트-컨텍스트간의 연결에는 소위 ‘전통’의 문제 뿐 아니라, 일본어를 통한 식민의 채널이 관통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당대 어휘에 대한 한 보고에 따르면 근대형성기의 일본계 한자어들 중 82%가 전문어나 학술용어, 정치·사상 영역의 추상 개념과 같은 사유와 정치의 질서를 직접 구성해 온 언어라는 것이다.⁷⁾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위원이었고 초대 법제처장을 지낸 유진오가 설명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유래는 그런 의미에서도 상징적이라 할 것이다. 최초의 헌법으로도 이야기되는⁸⁾ 「대한민국국제(大韓國國制)」(1899, 이하

의 번역과 근대 일본의 사고·감각의 문제가 사인의식(士人意識)이나 비분강개와 같은 이질적 현상과 함께 그 종합적 실재를 드러내게 되는 까닭이다. 齋藤稀史, 『漢文脈と近代日本』, 日本放送出版協會, 2007, 13~16면, 24~29면. 다소 그 외연이 무한정 넓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문제 구성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이 한문맥(漢文脈)의 문제들이 한국의 근대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분석 지점들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근대 한국의 한문/한자는 번역적 재현보다는, 전통의 개입, 식민어로서의 일본어의 문제와 함께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논할 것이다.

- 7) 박영섭, 「국어 한자어의 기원적 계보 연구: 현용한자어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86. 일본에서 전해진 한자어 전반에 대한 연구로 최경옥, 『한국개화기 근대외래한자어의 수용연구』, J&C, 2003.
- 8) 이태진, 「고종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2000 참조. 이 「대한민국국제」를 (준)헌법으로 규정하는 견해에 대한 비판, 역비판으로 김재호·이태진 외, 『고종황제역사청문회』, 푸른역사, 2005.

‘국제’)⁹⁾에 대해 유진오는 다음과 같은 묘한 양가 감정을 내비치고 있다. ‘국제’의 보수성을 통박하며(“이 얼마나 반동적 국헌(國憲)인가!”) 그는 이렇게 쓰고 있다. “홍범십사조(洪範十四條)와는 달리 국한문을 섞어 쓴 점은 일진보라 하겠으며, 또 그 용어에 있어서는 일본의 명치 헌법의 영향을 많이 받은 흔적이 보”¹⁰⁾이다. (『대한국국제』를 평가하는 첫 발언으로 국한문체에 대한 평가가 전면화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자.) 유진오의 말이 암시하듯이, 한문에 대한 부정적 관점은 상당부분, 전통이나 권위주의, 문화의 고층(古層)에 대한 적대 뿐 아니라, 일제 문화의 청산이라는 당위와도 결부되어 있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유진오가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대한민국헌법은 과도정부 사법부의 미국인 고문인 우드윌의 헌법안(The Constitution of Korea)¹¹⁾의 번역적 성격이 농후하였다는 점이며, 그 번역적 재현의 결과로서 작성된 헌법 역시 일본식 용어 투성이의 국한문체를 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강조해 두어야 할 것은 일제 청산이라는 당위적 명제나 언어생활의 민주화라는 요청이 사산시키는 문제들도 없지 않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위에서 든 사례처럼, 한문맥(漢文脈)의 문화적 권위에 의존해 작성된 국한문체의 헌법 안에 일본어와 구문맥(歐文脈)의 질서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상기해야 한다. 더구나 유진오가 양가적으로 이야기한 국한문체의 사용과 일본어의 개입이라는 문제는 실상 같은 맥락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해야 할 것이다. 『대한국국제』(1899)와 『대한민국헌법』

9) 대한국국제와 일본 헌법초안에 대한 연구로, 전봉덕, 『대한국 국제의 제정과 기본 사상』, 『한국법사학회』 창간호, 1974.6; 서진교, 「1899년 고종의 ‘대한국국제’ 반포와 전제황제권의 추구」, 『한국근현대사연구』, 한울, 1996; 왕현중, 「대한제국기 입헌논의와 근대국가론: 황제권과 권력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2002.

10) 유진오, 『헌법해의(憲法解義)』, 탐구당, 1952, 15면.

11) 유진오의 『헌법해의』를 보면, 그는 헌법 초안의 유일한 외재적 원천으로 이 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위의 책, 26면. 보다 자세한 기록으로는 유진오, 『헌법기초회고록』, 일조각, 1980.

(1948)에 개입하는 언어적 힘은 사실 유진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이한 것만은 아니었다. 보기에 따라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한문맥(漢文脈)과 그 정치적 현현으로서의 일본어로부터, 구문맥(歐文脈) 혹은 영어로의 이행처럼 보인다.¹²⁾

그러나 이미 국한문체로 재현된 「대한민국국제」안에 포함된 일본어의 배후에는 구문(歐文)이 자리 잡고 있음도 부인하기 어렵다. “제1조 대한민국은 세계 만국의 공인하는 自主獨立 제국이라”라는 규정만 보더라도, 이미 이 조항의 명사 대부분이 근대 일본이 생산한 서구 원천의 ‘번역어’임을 알 수 있다. 위의 한자들을 한글로 변환시킨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민국(民國), 법통, 전통, 민주, 평화, 자유와 같은 어휘들이 이미 한자라는 기원과 그 한자를 결합시킨 한문의 잠재력에 기대 있고, 무엇보다 이러한 조어능력을 작동하도록 만든 번역적 근대로부터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자로 표상된 언어의 내포 안에는 식민자의 언어로서의 일본어¹³⁾와 함께, 그러한 근대 일본어를 산출한 상위 언어

12) 실제로 해방 직후에 편찬된 신어사전의 경우, 표제어의 1/3가량이 이미 한자로 번역되지 않은 영어와 러시아어 유래의 음차(音借) 신어회로 채워져 있음을 볼 수 있다. 편집자는 서문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日進月步하는 現代文化와世相은 이를表現하는 新時代語를 雨後の竹筍 같이 簇出 식히고 있다. 吾人이 現代人으로서 現代에處함에 現代의 世相을 正確히 把握하고 事物의推移를 洞察하여 新思想 新智識을 얻으려면 먼저 其時代語를 理解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원문대로 인용) 民潮社 出版部(鄭桓根 代表執筆) 編, 『新語辭典』, 民潮社, 1946. 진보와 신어의 탄생을 연관시키는 저자의 입론에 주목해볼 때, 이미 진보를 재현하는 미디어는 번역의 과정을 생략한 영어/러시아로의 한글 음차로 이전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어쩌면 바로 그 순간부터 일본제(혹은 중국제) 신문명어의 자연화는 강도 높게 진행되게 되었는지 모른다.

13) 예컨대 일제 잔재(“현행 민법 조문 60%는 일본 민법을 직역한 문장”) 혹은 법률생활 민주화의 측면에서 법률 한글화를 위한 많은 시도가 있고 얼마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그 변화는 부분적이며 방향성도 분명하나, 개정 법률들에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한상범, 「한글화를 통한 법률생활의 민주화로-법률이 우민지배의 통치수단이 된 역사적 잔재를 청산하기 위하여-」, 『아태공법연구』 13호, 2005 참조 정부에서는 5개년 계획을 세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법제처 주도로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 1,160여

로서의 서구어가 번역적 재현의 연쇄 과정을 통해 각인되어 있는 것이다. 한문맥(漢文脈)은 한문과 한자의 문제를 초과하는 뇌관 많은 장소에 존재한다.

한자로 쓴다고 해서 개념이 명징해진다고 생각하고 안심하는 것이나, 이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우리말로 사유하기를 강조하는 입장 모두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한자어를 통해 우리가 한국의 근대의 두 구성요서인 한문맥(漢文脈)과 구문맥(歐文脈)을 동시에 사유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일견 당연할 수도 있는 요청이다. 개념의 한글화-한자의 은폐는 탈식민화의 가능성과 함께 식민 채널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는 까닭이다.

허다한 서구의 철학들이 어원론적 입론과 언어의 기원과 문맥을 이해하는 일로부터 스스로의 사유를 전개시키고 있음을 상기하는 것으로 좋을 것이다. 예컨대, ‘사유’의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법적 용어를 ‘물권’으로 쓰느냐, ‘물권(物權)’으로 쓸 것이냐, 또 어느 것으로 써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주체적인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그 원어[Sachenrechte/real rights]를 찾아나서는 이중어사전적 발상이나, 번역적 재현의 상호형상화의 도식을 다시금 작동시키면서 안심하는 일로 충분한 것도 아니다. ‘물권(物權)’이라는 언어의 배후를 계속 질문해나가며 한자어 ‘物權’과 독일어의 Sachenrechte의 너머에 있는,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의 문제를 직접 질문하는 단순할 수 없는 언어정치적 과정을 생략하는 한, 또 그러한 개념이 구성한 근대 한국의 문맥을 검토하지 않는 한, 한국적 사유도 세계보편의 사유도 생겨날 수 없을 것이다. 예컨대 최근의 한

건을 정비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의 법률 한글화의 한 사례로 다음의 개정 법률 제8485호 “새마을금고법 전부개정법률”의 경우를 보자.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 문장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 쓰며 복잡한 문장체계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국민중심의 법률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2007년 5월 25일 공포, 시행)

국 근대문학 연구는, ‘문학’과 ‘文學/文藝’와 ‘literature’를 ‘역어(譯語)’의 관점에서 사유하는 횡단언어적 관점, 그리고 이 언어의 문제를 실재하는 역사와 잠재성의 관점에서 대조하는 작업 등의 사례를 통해, 한문맥(漢文脈)과 그것이 포괄하는 구문맥(歐文脈)의 존재가 상호불가분의 것으로서 소위 國文(脈/學)이라는 것을 형성해 왔음을 밝혀왔다. 우리는 이러한 개념사적 질문을 그 개념의 자장과 문맥, 구체적으로는 그 개념이 구성하는 통사론과 서사의 문제로까지 확장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말이란 문맥과 이야기 속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문의 이질성과 사유에 끼치는 ‘악영향’에 비례하여, 한문맥(漢文脈)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고도 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비로소 한문을 둘러싼 권위의 해체를 맞은 이 시점에서나 가능한 비판일지 모른다. 그러니까, 비로소 오늘의 시대에 이르러 한국인으로서 한문 자체를 성스러운 아우라로부터 분리하여 어원학적 대상, 언어적 개입의 대상으로 완전히 분절해 사유할 수 있는 입장을 취득하게 되었다는 말이 된다. 그 분절은 통사론적인 구성의 문제를 통과해, 이들 문명어들이 구성한 한국의 근대를 사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입구가 된다. 따라서 이를 통사론과 문맥, 서사 구성의 차원으로 확장하여 한자어들의 문맥과 그것이 의지하는 상위 체계의 문제로 확장하는 일, 즉 한문맥(漢文脈)의 관점에서 근대를 다시 생각해보는 일은, 하나의 요청이면서 우리 시대가 가진 중요한 조건이라 할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근대 한국의 개념 질서는 그 기원과 발생-근과거를 은폐한 채로, 말 자체가 자연화되는 순간을 맞고 있다. 한글 전용이 과제가 아니라 현실이 된 지금, 문제는 개념의 명정성도 토착성도 아니다. 자연화된 것은 비판의 대상이지 청산의 대상일 수 없다. 그러한 믿음이 청산하는 것은 말이면서 사유이다. 우리말로 철학하고 문학하고 사유하는 일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그 우리말의 구성을 살피는 고고학 혹은 계보학적 작업일 것이며, 그 말이 구성하는 맥락과 서사의 차원이 되어야

한다. 주체성을 둘러싼 정치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힘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구성의 과정을 통해 주체 스스로를 생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말의 자연주의를 비판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앞서 대한민국헌법의 사례를 들었던 바, 구성되어진 힘(constructed power)이 의식 속에서 지워버린 구성하는 힘(constructing power)을 끊임 없이 상기시키지 않는 한¹⁴⁾ 본질적 의미에서 반성('re'flection)은 일어날 수조차 없다. 그리고 말(의 역사)에 대한 반성이 없다면, 새로운 사유 역시 존재하기 어려울 것이다.

3. 문학과 언어-신문명어의 서사 구성력과 식민 미디어로서의 소설

팔봉(八峰) 김기진은 제대로 된 조선어사전 하나 없는 1924년 말미의 조선의 문학과 사유를 진단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조선에도 문학이 있었다” 하면 그것은 옛날의 한문 문학을 이룸이요, 또 한 그 한문의 번역 문학을 이르는 말일 것은 물론이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서 “현금에도 조선문학이 있다” 하면 이것도 역시 외국어를 조야한 조선 말로 옮기어놓은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일 줄로 안다. 무슨 까닭이나? 이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들의 문학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위하는 생활 그 자체가 수입으로부터 시작된 까닭일 뿐이다.¹⁵⁾

수입된 것을 인정하는 일-지금 하는 이 말의 외부성을 의식하는 중요

14) 여기에 대하여, Giorgio Agamben, “Potentiality and Law”, *Homo Sacer: Sovereign Power and bare Life*, translated by Daniel Heller-Roazen,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pp.39-40.

15) 김기진, 「조선어의 문학적 가치」, 홍정선 편, 『김팔봉문학전집: I 이론과 비평』, 문학과지성사, 1988, 27면.

성에 대하여 김기진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 “조선어의 완성
은 조선 문학의 건설을 선행”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차후 조선문학의 중
대 과제로 “창작이나 혹은 번역을 하는 사람은 그 뜻만을 전함에 그치지
말고 첫째 단어의 정리를 할 일”¹⁶⁾을 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 말은 그가
말한 수입된 문학이 그 근원에 있어, 단어와 생활의 차원에서 시작된 것
임을 뜻하며, 나아가 이 단어 차원의 반성에서부터 비로소 조선문학은
시작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사전학적 발상이 없다는 것은, 쓰는 데의 어
려움만이 아니라, 쓰기의 실재에 있어서 다른 사전-식민화의 채널을 작동
시키게 한다. 조선말이 멈출 때, 일본어 사전이 불려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근대문학에 관해 무엇을 할 것인가. 서사인가. 미디어와 제도인가. 아니,
우선 ‘말’을 의식해야 하는 것이다.

로크와 그의 상속자들인 루소, 콩티악 이래, 국민 주권과 개인의 권리,
즉 ‘시민성’과 ‘생각하는 주체’의 문제는 동시발생적인 내적 관련성 안에
서 사고되어 왔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생각은 프랑스 혁명 이래의
‘문명’civilization이라는 신조어를 둘러싸고 진행되었다. 왜냐하면 문명
자체가 긍정예절을 답습하는 부르주아지들의 예절 속에서 부각된 가치이
며, 이 가치를 통해 근대적 개인이 구성되는 한편 식민화 과정이 정당화
되었기 때문이다.¹⁷⁾ (civil과 civilization의 관계를 상기해 보아도 좋을 것
이다.) 피르도스 아짐은, 사실상 프랑스 혁명 이래의 철학적 사유는 개인
의 지위를 개인 주체와 언어 사이의 관련 속에서 사유해왔다고 강조한다.
그렇다는 것은, 인간주체의 발달에 대한 가장 유력한 설명들이 인간 주체
의 발달을 언어 사용의 발달과 동일시해 왔음을 뜻한다. 말의 형상과 표
현을 획득한다는 것은 스스로가 문명인임을 증명하는데 있어 점점 더 중
요해졌고, 문학의 지위는 따라서 올라갔다. 신문명어와 그것에 의해 구성

16) 김기진, 위의 글, 위의 책, 29면.

17) 노베르트 엘리아스, 『문명화과정』 I, 박미애 역, 한길사, 1996 참조

되는 내러티브란, 근대적 주체의 탄생과 식민화의 과정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문학의 자율성이나 정치성을 강조하는 것과는 다른 국면에서 소설은 문명화의 채널을 강화했고, 그 발생 자체가 식민주의와 결탁해있었던 면이 있다.

문학 비평의 영역 안에서,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의 포합(抱合: incorporation)은 창작, 교육, 비평과 같은 문학과 관련하여 동기화되었고, 이 자체가 세계사적 과정의 일부였다. 문학을 역사로서 공부하는 일이란, 결국 문학사에 대한 연구로 빨려 들어가는 일인데, 거기서의 문학의 행보란 (식민주의의) 파종과 보급의 양식 혹은 지위로 정의된다.¹⁸⁾ 요컨대 근대 문학이 결국 ‘개인’의 문제를 통해 사회를 다룬 것이라면 “루소와 콩티악의 저작에서처럼, 개인의 묘사는 문명과 문화의 발달을 기록하는 서사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여기서의 발달이란 개인의 성장과 관련된 것이었고, 그것과 닮은 개념들 안에서 재현되었다.”¹⁹⁾ 여기서의 “닮은 개념”이란 필시 문명(이나 문화)의 발달이라는 보다 큰 차원의 담론틀을 의미할 것이며, 당연히 이러한 근대의 개념들은 식민화의 문제와 연동되어 있다. 개념과 함께 팔려 들어오는 것은 외부의 세계관이자 실제의 정치 세력들이며, 근대의 내러티브는 이러한 불러들임을 개인의 성장과 동시적으로 부조해낸다.

마사오 미요시(Masao Miyoshi)는 이러한 인식을 소설이라는 양식 혹은 미디어 자체의 문제로까지 소급한다. “식민 관청에서 파견한 대사나 사령관, 혹은 세계 방방곡곡에 주둔한 총독이나 행정관처럼, 구술이 아니라 글로 씌어져 널리 배포될 수 있었던 대도시 작가의 소설은 식민지로 보내지는 데 특히 적합한 형식이라고 생각해 보면 매우 흥미로웠다. 소설은 필연적으로 식민주의적이며, 비록 반식민적 주제를 갖는 경우에도 분명 그랬다.”²⁰⁾ 성숙은 문명화와, 문명화는 식민화와 연동되어 있었다.

18) Firdous Azim, *The Colonial Rise of the Novel*, Routledge, 1993, p.215.

19) 위의 책, 214~215면.

이쯤에서, 우리는 이 말을 개념이 가진 서사 구성 능력과 관련해서 좀 더 심화시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소설 안에서 신문명어를 찾아내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신문명어가 서사를 지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볼 수는 없을까. 근대 개념어는 신문명어와 같은 특정한 방향성을 가진 어휘의 연쇄가, 텍스트의 문맥 자체를 구성하게 될 수도 있으며, 이 문맥에 의해 소설의 서사가 구축된다고 생각해보는 것은 꽤 흥미로운 작업이다. 나아가 이러한 단어 → 통사 → 스토리 → 컨텍스트로 진행되는 거꾸로선 문학사회학을 통해서 한국근대문학·사상의 형성지점들을 점검해볼 수도 있으리라.

일청전쟁 평양일경
日淸戰爭 총소리는 平壤一境이 서는가는 듯하더니 그 총소리가 굶치미
청인 군사 추풍 낙엽 그러면무슨까닭으
淸人의 敗敗 軍士는 秋風에 落葉갓치 훑터지고 …(중략)… 然則 何故로
세상 한가지일 죽기
世上에 사라잇는고 一事를 기다리고 死를 찾고 있성더랴!!

1906년 7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만세보』에 연재된 이 소설은 출간단행본이나 영인본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한자가 노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일본어의 후리가나(振仮名、ルビ)와 유사한 ‘부속활자’(附屬活字)를 통해 그 자체로 스스로의 연원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아래의 경우와 대조해 볼 경우, 그 차이는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새 김생 버러지 물고기 종류 다 그도화 사람 호을 북 신령 성흙
禽獸과虫며魚의種類가皆其造化이 어날人이獨로사람되는福을 어더靈 性
이잇신즉어디질집지아니 ㅎ리오²²⁾ (『노동야학독본』 중에서)

에서 를 ㅎ는 에는 를 흙을 치아
私立學校ニ於テ左記ノ圖書ヲ使用スル場合ニハ認可ヲ受クルヲ要セス
니ㅎ고 에 ㅎ야 의意를申告함이 可흙
但シ私立學校規則第十條第一項ニ依リ使用ノ旨届出ツベシ²³⁾

혈의 누의 경우는 사실상 이미 한자체계가 완전히 한글 읽기에 포섭되어 있어, 대개 위의 후리가나를 읽든 아래쪽의 한자부분을 읽든 문법적으로 바르게 읽을 수는 경우가 많지만, 유길준의 『노동야학독본』은 아래쪽의 한자어가 아니라 위쪽의 한글부분을 읽어야 호응이 바르다. 그러니까, “禽獸과虫며”라고 읽는 것이 아니라, “새 짐승과 버러지며”라고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길준이 우리말 풀어쓰기와 한자어를 함께 드러냄으로써

22) 유길준, 『노동야학독본』, 제7과, 『유길준전서Ⅱ』, 일조각, 1996, 275면.

23)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편찬교과용도서』, 『교과용도서일람』(大正四年十二月一日調), 1915. 식민지기 일본어문서 중에는 한글로 부속철자=후리가나를 단 사례도 발견된다. 나는 이러한 사례를 야스다 토시아키(安田敏郎)씨의 이 글에 대한 토론문을 통해 새삼 인식하게 되었다. 부속철자를 달아 일본어 문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쩌면 이러한 사례를 통해, 우리는 근대 개념어 혹은 신문명어 연구란 다름 아닌 사유에 개입된 식민 채널의 지속성, 이를 안착시킨 한문맥(漢文脈)이라는 공유 장소를 탐구하는 일에 다름 아님을 확인하게 된다.

계몽의 기획과 전통의 기획을 동시에 시도하고 있음에 비하여, 『혈의 누』의 이인직의 경우는 한자어를 소리대로 읽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한자를 한문이라는 원천으로부터 분리해 한국어의 음성적 질서 안에 통합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자어 자체를 조선어 질서에 그대로 통합하는 한편, 그러한 과도기적 통합의 방식을 통해 일본어의 유입을 용이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번역적 재현의 과정은 은폐되며, 말의 자연화가 시작된다. (이 자연화는 완전히 한글화된 1907년의 단행본²⁴⁾에서 더욱 강화된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들 한자어 중에서 소위 ‘신문명어’를 추출해 볼 경우이다. 『혈의 누』의 일본군에 대한 환영은 그들이 가지고 들어온 신문명어에 대한 환영과 짝을 이룬다. 사실상 바로 이 신문명어들에 의해 소설의 문맥과 당대의 컨텍스트를 끌어들이는 이인직의 태도 자체가 구성된다고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한자어들은 한글 위주의 이 소설에서 후리가나와 함께 시각적으로도 도드라지게 드러날 뿐 아니라, 서기체계상 두 번 읽게 되는 효과를 유발한다. 이야기를 신문명어에 한정해 볼 경우, 독자들은 한번은 한글의 체계 안에서, 또 한번은 한글로는 해소될 수 없는 외부성의 인식 속에서 이 소설을 읽게 된다. (물론 독자의 배치에 따라, 각각 한글로만 읽는 독자와 한자로만 읽는 독자가 있었을 것이지만, 한글로 읽는 독자라 하더라도 생경한 신문명어에 마주쳐 한자를 들여다 볼 수밖에 없다.) ‘우리말’의 외부성과, 그 외부성이 지배하는 서사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또 우리말이라는 픽션을 의식하는데 있어서 위의 사례는 특별한 예외라기보다는 전형적 사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단적으로 이인직의 『혈의 누』에서 신문명어를 추출해보자,²⁵⁾ 나는 혹

24) 이인직, 『혈의누』, 광학서포, 1907. 김윤식 외 편, 『신소설·번안(역)소설1』, 아세아문화사, 1978의 영인본을 참조.

25) 최경옥은 『한국한자어사전』과 『대한화사전』, 『일본국어대사전』, 기타 사서, 경전류를 기준으로 『혈의누』의 ‘근대외래한자어’ 94개를 위와 같이 정리하였다. 그러나 얼른 보기에도 야전병원이나 군의(軍醫)와 같은 단어들이 제외되어 있어서, 실제

이 단어들만으로 소설의 내용이 유추 가능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다음의 신문명어들을 통해 우리는 소설의 내용과 주인공들의 활동범위, 시대상황, 지적 배경 등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各色 簡單 看護(手) 結末 缺點 戒嚴 高等小學敎 困難 工夫 關係 廣告 國制 勸工場 權利 記事 汽車 勞動(者) 斷念 判斷 到底 讀本 獨逸(國) 東洋 目的 文明 物件 美國 半島 反動 病傷兵 病院 社會 賞金 桑港 生產 生時 西洋 所聞 小說 少佐 時間 時計 神經 新聞 新聞紙 壓制 野蠻 洋服 言論 旅費 旅人宿 聯邦 鉛筆 英文 英書 完人 郵遞 郵遞司令 郵便軍士 輪船 陰曆 人力車 日語 日前 自決 自鳴鐘 雜報 財産 赤十字 電氣 占領 情景 停車場 卒業 週日 中學校 地動 指向 直接 天然 遞傳夫 太平洋 平生 平日 學費 海峽 行爲 憲兵 號角 號外 火輪船 休學

보다시피, 이 말들은 한 두 단어를 제외하고는 모두 현재에도 사용하고 있는 ‘국어’들이다. 이렇게 신조어는 실제로는 통사를 좌우하고 서사 자체를 구축한다. (반대로, 그러한 내용을 쓰다보니 그런 단어가 자연스레 유입되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미 그런 내용을 구상하고 있는 이 일본 유학생 출신 작가의 머리는 이들 신문명어²⁶⁾에 점령당해 있는 머리이며, 이러한 단어들의 연쇄를 통해 소설의 일관성이 발생

로 새롭게 정의되어 쓰인 한자어의 양은 보다 많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녀의 방대하고 세심한 연구 덕분에 우리는 개화기 신문명어와 새로 유입된 외래어의 면모를 좀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다. 최경옥, 『한국개화기 근대외래한자어의 수용 연구』, J&C, 2003, 33면. 다만, 그 판본이 단행본 한글판의 영인본이라, 이들 어휘들의 의미를 검토하는 데는 얼마간의 한계가 있다. 차후 연재본을 기준으로 필자 스스로 정리해 보려 한다.

- 26) 위에서 든 새로운 한자어 중에 적어도 절반이 넘는 단어가 일본제 신문명어이다. 신소설의 ‘근대외래한자어’의 원천과 고증의 사례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경옥, 위의 책, II장을 참조하는 것이 유익하다.

한다는 점이다. 하나의 신문명어는 다른 신문명어와 세계성을 불러들임으로써, 서사를 추동하게 된다. 예컨대, 다음의 구절을 보라.

귀국 병상병 일본덕판 옥련 교군
 歸國 病傷兵 日本大阪 玉蓮 轎軍
 仁川 료선 등뒤 부모소식
 仁川 仁川 輪船 背後 父母消息
 묘연 목전 타국산천 생소
 杳然 目前 他國山川 生疎

옥련의 인생의 커다란 전화점들은 이처럼 청일전쟁과 함께 시작되어, 이들 병사들의 흐름을 좇아 일본에 이르며, 그녀를 인도하는 것은 바로 앞서 말한 신문명어들이다. 위의 경의 옥련의 앞과 행로에는 ‘輪船’, ‘日本大阪’과 같은 신문명 표상의 언어들이, 그녀의 뒤에는 ‘父母消息’과 같은 언어들이 배치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비근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설자야, 우리 玉蓮이 데리고 雜店에 가서 玉蓮에게 맞는 婦人洋服이나 사가지고 목욕집에 가서 목욕이나 시키고 朝鮮 服色을 벗기고 洋服이나 입혀 보자”(강조 필자, 후리가나식 부속철자는 생략)와 같은 구절도 그 중 하나이다. 신문기사를 통해 옥련을 찾고, 화료선에 의해 소설의 공간이 확대되는 단어가 이야기의 모먼트들을 생각해 보아도 좋을 것이다. 발상이 먼저이고 단어가 나중인가, 먼저고 서사가 따라왔는가라는 환원적 질문에 휩싸일 것을 무릎쓰고 말한다면, 신문명어 자체가 일본이라는 힘과 그 배후의 문명의 아우라를 불러들이고 바로 그 신문명어에 의해 소설이 추동되고 있다고 말해 틀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 환원적 체계, 단어와 서사, 단어와 사유 사이의 선후관계를 규정할 수 없는 순환 구조야말로 중요하다.)

27) 국초, 「혈의누」(18), 『만세보』, 1906.8.17.

소설이라는 양식은 문명이라는 매혹적 가치·신념·서사를 언어의 차원에서 전파한다. 앞서 든 마사오 미요시나, 아짐의 말처럼, 소설이라는 미디어medium는, 신문명어를 통해서 조선 안에 문명과 함께 야만의 이미지를 각인하는 식민주의의 역할을 수행한다. 한자라는 미디어, 또 그 미디어에 내포를 실어주는 한문맥(漢文脈)의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한국의 근대 소설이 번역적 재현이나 전통의 변용과 같은 언어로서 설명하기 힘든 식민화의 채널에 점령당해 있음을 알게 된다.

더구나, 이렇게 경유된 번역어의 수입에 의해 장악된 소설의 서사는, 조선 내부에 있어서 그것이 발신될 수 있는 내부식민지를 만들게 된다. (물론 이 과정은 문명화, 국민화의 경로이기도 하다.) 도쿄 유학생 출신의 소설가들을 통해 부각되는 구더기 들끓는 조선(지방)의 야만성은 오랫동안 한국 소설의 주제와 분위기를 구성해왔다. 문명과 야만이라는 언어는 동시에 도착하며, 소설과 함께 도착한다. 서구 문명에 대해서는 문화를, 동양에 대해서는 문명을 주장하는 메이지 후 일본의 논리와 같이, 경성과 여타 대도회의 소설은 여타의 제국을 향해 저항의 메시지를 발신하는 순간에조차, 내적으로는 식민주의적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 면이 있다.

4. 일신이서(一身二書), (국)한문으로 쓰기·변영만의 조선어론과 어원학적 사고

에크리튀르를 둘러싼 근대 한국의 해계모니 투쟁사를 보자면, 한문맥(漢文脈)의 복잡성에 대한 사고가 다소 일방적인 논의로 흐르곤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근대 국어국문의 발생이, 일본어의 유입과 압착되어 사고됨으로써, 근대어의 기원과 생성이라는 문제가 한자어와의 결별이라는 문제로 전화하곤 했던 것이다. 그러나 한문맥(漢文脈)을 확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개념 ‘유입’ 과정의 식민성을 비판한다거나 전통의 변용이라는 문맥을 부각시킨다거나 하는 주체 구성의 전략과는 별 인연이 없다. 문제는

한문맥(漢文脈) 안에서 다양하게 교차하는 당대의 이념들이며, 한자를 통해 구축된 한국의 근대라는 서사이다. 그런 의미에서 구문맥(歐文脈)을 한문(과 국문, 주로 한문)으로 재현하곤 했던 산강(山康) 변영만(卞榮晩, 1889~1954)의 사례는 상징적²⁸⁾이다.

지금의 상황에서 크게 소리치고 급히 제창하여 마땅한 바는 아마 ‘국민주의(國民主義)’일 것이다. 국민주의라는 것은 상세히 말한다면 바로 한민족(韓民族)이 생존할 수 있는 주의이다. 한민족이 생존할 수 있는 주의가 날로 확대되면, 다른 데서 온 제국주의를 은밀히 녹이고 보이지 않게 없앨 수 있을 것이요, 한민족이 생존할 수 있는 주의가 국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의 제국주의를 잉태하고 길러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국민주의라는 것은 적을 막을 수 있는 큰 도(道)요, 진취적(進取的)으로 나갈 수 있는 바탕이다. …(중략)… 그러므로 내가 이 책을 역술(譯述)할 때 그 목적을 둔 바는 정면(正面)에 있지 않고 도리어 반면에 있다. 대개 저 제국주의의 험상(險狀)을 모사하여 우리 국민주의(國民主義)의 정신을 불러일으켜 작성시키려는 것이다. …(중략)… ‘나는 무사하다’고 말하는 자는 나와 도(道)를 같이 하지 않는 자이다.²⁹⁾

28) 변영만에 대해서는 최근 학계의 성과가 풍부하고 활발하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김진균(金鎭均), 「변영만의 비판적 근대정신과 문예추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3; 신익철(申翼澈), 「근대문학 형성기 변영만의 사상적 지향과 문학세계」, 『한국한문학회연구』 32집, 2003; 한영규, 「변영만 『觀生錄』의 몇가지 특성」, 『우리한문학회 동계발표문, 우리한문학회』, 2003. 가장 종합적인 것으로는, 『대동문화연구』, 55호(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6)의 특집 「근대문명과 산강(山康) 변영만」을 참고할 수 있다.

29)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역주, 「二十世紀之大慘劇 帝國主義 自敍」(1908), 『변영만전집』 상, 2006,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2006, 627-628면. 居今之日, 所宣大聲而疾呼者, 其國民主義乎! 國民主義者, 詳言之, 卽韓族生存之主義也. 韓族生存之主義, 日張大焉, 他來之帝國主義, 可以潛消以暗滅之, 韓族生存之主義, 到厥極言, 吾家之帝國主義, 可以孕蓄以發揮之, 要之, 國民主義者, 禦敵之大道也, 進取之宏基也. 이하 생략. 與余道不同者也. 實是學舍 고전문학

변영만은 「이십세기지대참극 제국주의」라는 번역서를 출간하며 유길준에게 한문으로 된 서문을 받고, 스스로 한문 자서를 썼으며, 본문은 국한문체로 번역해했다. 아울러 그는 일본 박문관에서 발행한 『시대지추세(時代之趨勢)』와 함께, “西人 라인슈씨의 所著 『世界之政治』를 參互함”이라고 쓰고 있다. 제국주의와 관련해 한민족의 국민주의를 주창하는 그의 입론은, 우리에게 한문이라는 글쓰기에 대한 통념과는 배치되는 매우 복합적인 틀을 구성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든다. 한문맥(漢文脈) 안에서 서양적 원천의 개념어와 사유들이 병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뿐더러 그는 이 개념들의 저편을 늘 염두에 두는 사람이었다.

김억 다음으로 많은 영시를 번역하고 괴테, 브레이크, 니체, 아나키즘에 경도되기도 했던³⁰⁾ 그는 “一流의 文人이 되자면 一切을 所有한 同時에 一切을 放棄하여야 된다. 換言하자면 ‘부유한 무산가’(Wealthy vanga-bond)가 아니고서는 될 수 없다 함이다.”라고 썼다.

우선 그는 번역된 근대-즉 일본을 경유하여 서양을 알 수 있다거나 알았다고 생각하는 태도에 대하여 통박한다. 기원에 대한 의식, 원본에 대한 의식 없이는 언어는 매우 불투명한 상태로 남기 때문이다.

가령 俄文佛譯・佛文英譯・英文獨譯 혹은 일본‘한’譯 유는 그다시 過甚한 불편은 없으나 원작의 묘미를 십중의 삼사분까지는 손상하는 선이 不無하고 至於 한문 서양역이라든지 서양문 일역 유에 至하여는 근소한 결품을 제해 놓고는 신용할 수 없음이 거의 통칙이다. 그리한데 목하 우리 학인들은 흔히 일본문을 통하여 서양문학의 秘奧를 규탐하려 한다. 당초부터 될 수 없는 일인 것이다.³¹⁾

연구회 역주, 『변영만전집』 중, 2006,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2006.

30) 한영규, 「산강제조문 해제」, 『변영만전집』 하, 14면. 그는 그 중에서도 산업문명의 폐해를 읊은 블레이크를 애송했다 한다. 다만, 식민지기를 통해 실제로 변영만이 김억 다음으로 많은 영시를 번역했는지의 여부는 검증을 요한다.

31) 변영만, 「번역서물(翻譯書物)의 위험」(1931), 『변영만전집』 하, 215면.

위의 말을 일본이라는 매개를 부정하고, 서양이라는 원천을 세우는 발
 언쯤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다소 서양에 치중하고 있는 원천에의 갈
 구처럼만 보일 소지가 없지 않은 대로, 오히려 강조점은 중역(重譯)을 믿
 고 안심하는 ‘태도’ 자체에 있다고 할 것이다. 한문이라는 원천을 장악하
 고 있는 그로서는, 한자를 통해 재현된 서구를 직접 서구 자체로 생각하
 는 사고를 이해할 수 없었으며, 이러한 의식은 그로 하여금 일본의 한자
 조어력-번역을 통해 구성된 서양이 아닌 맨 얼굴의 서양의 모습을 계속
 상정하도록 했다. 피식민자의 세계 인식이 종종 식민본국의 언어를 ‘세계
 어’ 그 자체로 인식하곤 한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언어 그 자체, 개념 그
 자체의 사용과 기원을 계속 의식했던 변영만의 관점은 특기할만한 것이
 라 생각된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도, 변영만이 조선어의 범위를 되도록 개방적인
 사고 속에서 생각하자고 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한문에 투입한 서양
 원천의 한자어들을 의식할 수 밖에 없었던 그에게는 소위 ‘어원학적
 (Etymologically) 觀考’³²⁾라는 것이 존재했던 것 같다. 그가 보기에 한자
 어나 서구 유입의 외래어 등 “通用語까지를 純朝鮮語化하려는” 발상 자
 체가 고루한 것이었다. “세계의 何國을 막론하고 절대적의 純土語로만
 조직된 국어는 없는 법이다……좀더 ‘어원학적(Etymologically)으로 此를
 觀考하’³³⁾는 일, 외래어를 잘 흡수하는 일이야말로 그에게는 “民度を 昂
 上하여가는 법칙이다.” 어쩌면 그의 10년 가까운 중국 유랑이 한문과 중
 국어는 다르다는 외국어 의식을 형성했을 것이고, 그는 한문과 일본어,
 한글 사이에서 어원론적인 사고와 한문맥(漢文脈)이라는 복잡계를 포괄
 하는 조선어론을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혹 여기서 기원을 계속
 의식하는, 그러면서 그 사용을 기획하는 어떤 지향을 확인할 수는 없을까.
 과연, 그는 ‘手續’, ‘場合’, ‘頭取’, ‘取締’ 등과 같이 번역어·문명어로

32) 변영만, 『조선어의 영역』(1931), 『변영만전집』 하, 208면.

33) 변영만, 위의 글, 위의 책, 208면.

서 기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대체 가능한 어휘인 일본제 한자어를 조선 어에서 제외시키자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변영만은 한문맥(漢文脈) 안에서, 여전히 언어와 개념을 사고하는 입장에 서 있었던, 일본이라는 정치적 힘과 말이 맺는 관계를 계속 의식하는 한편, 상대화시키고 있었던 보기 드문 사례인지도 모르겠다.³⁴⁾

5. 언어의 자연주의에 거슬러

한문맥(漢文脈)이라는 문제를 오늘의 입장에서 볼 때, 결국 여기서 국어 어휘의 절반을 넘는 한자어-한문으로부터 성조를 제거한 채 성립된 한국어 단어체계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성조의 제거로 인해, 태생적으로 동음이의어가 비일비재한 한국의 어휘 체계에 있어서, ‘음성적 질서’만으로는 의미를 확정하기가 용의하지 않을 때가 많다. 다시 말해서, 의미의 확정성에 있어서, 전후의 문맥이 필수불가결하게 고려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자어를 중심으로 문맥이 모아지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꼭 동음이의어의 문제 뿐 아니라, 여타의 생경한 한자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 언어가 그 문맥 전체의 해독을 방해하고 그 방해로 인해, 문맥 전체가 한자어를 중심으로 구성되곤 하는 현상은 흔히 있는 일이다. 은폐된 漢(子)文脈은, 그것이 은폐되어 있음으로 해서, 언어의 질서 안에 스스로의 존재를 더욱 강력한 기운으로 서리게 한다.

김우창은 1983년의 상황에서 이미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다. “우리 말에 있어서 이제야 의미질서의 상위체계로서의 한자문화는 사라져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말의 두 층은 얼마 안 가서 하나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질적인 것으로 남아 있지는 아니할 것이다.”³⁵⁾ 상황의 흐름(脈)은 대개 그러하다.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사유 체계의 이질성

34)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다 주의 깊은 해명은 차후의 과제로 돌린다.

35) 김우창, 위의 글, 위의 책, 281면.

혹은 외재성이 사라지게 됨을 뜻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바로 이 이질성이 사라지는 순간에, 즉 외재성이 사라지는 순간이 야말로 사유가 근원적 불가능성에 봉착하는 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은폐된 기원은 언어를 불필요한 어휘론의 차원에서 해방시켜 사용 혹은 도구의 차원으로 옮겨갈 수 있게 하는 한편, 한문맥(漢文脈)과 구문맥(歐文脈)의 잡종화이라는 현상 안에 잠재한 서구적·일본적 근대성과의 분투 과정과 사유의 (탈)식민성이라는 문제를 역사적 차원을 지워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유 전개에 기초가 되는 말의 물질성과 지시 능력, 기원을 모호한 것으로 만들며 그만큼 사유는 모호한 것이 될 수 있는 까닭이다. 개념의 국적을 물을 것이 아니라 개념, 그 말이 자연화되는 순간에도 여전히 남는 말의 픽션, 말의 역사를 의식해야 하며, 이를 언설의 질서 속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서구의 철학적 사유들이 라틴어와 그리스어의 용례와 기원에 대한 어원론적 분석 없이 행해질 수 있으리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한자를 포괄하는 한문맥(漢文脈)-이 말에는 이미 번역어의 생성과 같은 구문맥(歐文脈)과의 혼종 혹은 접합이 전제되어 있다고 할 때-에 대한 고려 없이 한국어로서 사유하고 개념적 사유를 행할 수 있다고는 상상하기 어렵다. 말을 의식하지 않고, 세계를 이해할 수는 없는 까닭이다. 어쩌면 이 말은 2007년을 살아가며 학문을 행하는 우리 아니, ‘이 나’가 漢子를 떠올리지 않고는 명사의 의미를 생각할 수 없다는 세대적 한계점에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의 없이 사용될 수 있는 개념이 존재할 수 없다면, 아무리 언어에서 ‘사용’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 사용이 전제하는 하나의 약속이나 유입사에 새겨진 원초적 폭력을 계속 문제시해야 한다. 기원을 잃는다는 것은 약속의 첫 순간, 법이 정립되는 순간의 ‘폭력’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번역적 과정과 언어 잡종의 문제를 통과하지 않는 한에서, 한자와 그것을 구성해낸 한문맥(漢文脈)은 한국인의 사유에서 피할 수 없는 기원의

문제를 계속, 제기하도록 만들 것이다. 당대의 한 철학자는 한국어로 철학한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자에 대한 물주체적인 관점을 비판하여 적잖은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날 한국철학계에서 언어에 대한 반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자신의 작업 도구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철학자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현재 사용하는 한국어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새로운 철학을 하고 있는 철학자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과연 현재의 한국어는 아마 반성없이 철학하는 도구로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는가.”³⁶⁾ 한자의 노출-즉 국한문체(물론 국한문체라고는 해도 이 말이 결코 단일하지 않음은 말할 것도 없다³⁷⁾)로 대변되는 문맥의 구성에 대한 강한 비판을 통해 “거래말 중심의 언어생활로 전환하는 과정”의 문제를 제기하는 이 글이 만약 한국어로 철학하는 것에 대한 ‘언어적’ 관심에서 출발한 것이라면, 이 말은 오히려 한자의 노출이라는 문제가 아니라 노출되지 않은 채 작용하는 한자의 문제로 향했어야 하지 않을까. 본질적 국면에서 보자면, 노출의 여부는 부차적이다. 사유의 언어로서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은 한글 내부에 귀속된 의식으로는 해소될 수 없다. 근대 개념어 연구란 언어들 사이에서, 번역적 과제로서 밖에 존재할 수 없다. 거기서 한문과 한자의 문제는 핵심적인 질문의 장소(topos)가 된다.

어떤 의미에서 일본의 근대 개념사 연구와 달리, 한국의 그것은 생산이

36) 이상수, 「한국어로 철학하기」, 『창작과비평』 통권 106호, 1999년 겨울호, 창작과비평사, 297면.

37) 황호덕, 『근대 네이션과 그 표상들』, 소명출판, 2005 참조 나는 이 책에서 국한문체를 둘러싼 담론적 실천과정을 검토하며, 국한문체의 변종 자체를 범주화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를 알게 되었고, 내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임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의식은 아래의 연구들에 의해 상당부분 해소되었다. 김영민, 『한국 근대소설의 형성』, 소명출판, 2005 외 김영민의 일련의 근대 서사에 대한 작업들, 한기형, 정선태, 정환국, 류준필 제 씨의 주목할만한 논문이 편집된 한기형 편, 『근대어·근대매체·근대문학』,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2006; 임상석, 「근대계몽기 잡지의 국한문체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6.

나 변용보다는 식민화와 그것을 넘어서려는 순수한 언어를 향한 구제(救濟)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한국의 근대 개념어는 번역적 재현의 문제 보다는, 언어 침식의 문제와 더 깊은 관련을 가진 것처럼도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도 번역의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서 존재한다. 왜냐하면 근대 개념어 연구를 통해 우리는, 근현대 한국어가 지속적으로 갈망해 온 ‘순수 언어’ pure language/reine Sprache의 꿈이 결코 한글 안에서는 달성될 수 없는 과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순수 언어’는 한국어 안에서가 아니라 그 밖-그러나 일본어라고도, 한문이라고도, 또 영어라고도 말할 수는 없는 장소에 존재한다.

말을 보호해야하는가. 말로 잘 표현해야하는가. 아마 그럴 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유’에 있어 더 기본적인 것은, 말을 의식하는 일이다. 개념을 통해, 서사로, 사상의 역사로, 그러니까 문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순간에야 우리는 말의 가시성과 불가시성이 갈리는 애매한 지점과 대면하게 되며, 이 세계와 우리의 사유가 자연적인 것이 아님을 알아차리게 된다. 법과 언어가 생겨나는 바로 그 순간으로 돌아가야 한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菊初, 「血의淚」(十八), 『萬歲報』, 1906년 8월 17일분.

民潮社出版部(鄭桓根 代表執筆) 編, 『新語辭典』, 民潮社, 1946.

법제처, 『법제처 보도자료』, 2006년 11월 28일 배포분.

實是學舍 古典文學研究會 역주, 『卞榮晩全集』 上·中·下, 2006,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2006.

俞吉潸, 『勞動夜學讀本』, 『俞吉潸全書Ⅱ』, 一潮閣, 1996.

유진오, 『憲法基礎回顧錄』, 一潮閣, 1980.

- 유진오, 『憲法解義』, 探求堂, 1952.
- 유진오, 『憲法の 基礎理論』, 明世堂, 1950
- 이인직, 『혈의 누』, 권영민 교열·해제,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 이인직, 『血의淚』, 광학서포, 1907. 김윤식 외 편, 『新小說·翻譯(譯)小說1』, 아세아문화사, 1978
- 趙相元 編, 『法典』(改訂2007年版), 玄岩社, 2007.
-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編纂教科用圖書」, 『教科用圖書一覽』(大正四年十二月一日調), 1915.

참고서지

- 권보드래, 「문학의 과거와 문학 연구의 미래」, 『사이/間/SAI』 창간호, 국제한 국문학문화학회, 2006. 11.
- 김우창, 「언어·사회·문체」, 『김우창전집3: 시인의 보석』, 1993
- 김진균, 「변영만의 비판적 근대정신과 문예추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3.
- 김기진, 「조선어의 문학적 가치」, 홍정선 편, 『김팔봉문학전집: I 이론과 비평』, 문학과지성사, 1988.
- 김영민, 『한국 근대소설의 형성』, 소명출판, 2005.
- 김재호·이태진 외, 『고종황제역사청문회』, 푸른역사, 2005.
- 박영섭, 「국어 한자어의 기원적 계보 연구: 현용한자어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학교박사학위논문, 1986.
- 서진교, 「1899년 고종의 ‘대한국국제’ 반포와 전제황제권의 추구」, 『한국근현 대사연구』, 한울, 1996.
- 신익철, 「근대문학 형성기 변영만의 사상적 지향과 문학세계」, 『한국한문학연구』 32집, 2003.
- 왕현중, 「대한제국기 입헌논의와 근대국가론 : 황제권과 권력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2002.

- 이상수, 「한국어로 철학하기」, 『창작과비평』 통권 106호, 1999년 겨울호, 창작과비평사, 1999.
- 이태진, 『고종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2000.
- 임상식, 「근대계몽기 잡지의 국한문체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6.
- 전봉덕, 「대한국 국제의 제정과 기본사상」, 『한국법사학회』 창간호, 1974.6.
- 최경옥, 『한국개화기 근대외래한자어의 수용연구』, J&C, 2003.
- 특집, 「근대문명과 산강 변영만」, 『대동문화연구』 55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6.
- 한기형 편, 『근대어·근대매체·근대문학』,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2006.
- 한상범, 「한글화를 통한 법률생활의 민주화로-법률이 우민지배의 통치수단이 된 역사적 잔재를 청산하기 위하여-」, 『아태공법연구』 13호, 2005.
- 한영규, 「변영만 『관생록(觀生錄)』의 몇가지 특성」, 우리한문학회 동계발표문, 우리한문학회, 2003.
- 황호덕, 『근대네이션과 그 표상들』, 소명출판, 2005.
- 노베르트 엘리아스, 『문명화과정』 I, 박미애 역, 한길사, 1996.
- 마사오 미요시, 「지구로의 전환: 문학, 다양성, 그리고 총체성」, 김우창·피에르 부르디외 외, 『경계를 넘어 글쓰기』, 민음사, 2001 참조
- 자크 데리다, 『법의 힘』, 진태원 옮김, 문학과지성사, 2004.
- 齋藤稀史, 『漢文脈の近代-清末=明治の文学圈』, 名古屋大学出版会, 2005.
- 齋藤稀史, 『漢文脈と近代日本』, 日本放送出版協会, 2007.
- Agamben, Giorgio, "Potentiality and Law", *Homo Sacer: Sovereign Power and bare Life*, translated by Daniel Heller-Roazen,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 Azim, Firdous, *The Colonial Rise of the Novel*, Routledge, 1993.

국문초록

오늘의 한국인은 漢‘文’을 사용하고 있지도 않고, 한문의 독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한문이라는 서기체계écriture 자체는 이미 문헌학적 대상으로 멀어져가고 있다고 말해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자어 사용에 있어서 실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권위의 원천으로서의 한문이라는 상위 언어체계임도 분명하다. 전체가 한문투성이의 한문장으로 작성된 「대한민국헌법전문」은 현대 한국인의 사유를 구성하는 ‘개념’의 질서가 중국과 (특히) 일본을 경유한 어휘들에 구성되어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예컨대, 당대 어휘에 대한 한 보고에 따르면 근대 형성기의 일본계 한자어들 중 82%가 전문어나 학술용어, 정치·사상 영역의 추상 개념과 같은 사유와 정치의 질서를 직접 구성해 온 언어라는 것이며 무엇보다 이는 한문의 결구력에 의존해 만들어졌다.

나는 이 글에서 근대 개념어=신문명어를 통해 작업했던 두 작가—李人植과 卞榮晩의 상반된 작업을 비교하는 일을 통해, 근대 개념어가 제기하는 ‘기원’(론)에의 요청과 근대적 언설 공간에 있어서의 ‘효과’의 문제를 다룬다. 우선 이인직의 『血의 淚』의 경우를 통해 나는 이 소설에서 신문명어들만을 추출함으로써 소설의 서사 자체가 짐작 가능함을 보였다. 무엇보다 이 소설은 신문명어들의 연쇄를 통해 일본, 그리고 미국으로 그 공간을 넓혀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이 연쇄는 식민화의 채널을 연상시킨다. 문학의 영역 안에서,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의 抱合(incorporation)은 창작, 교육, 비평과 관련하여 동기화되었고, 이 자체가 세계사적 과정의 일부였다. 성숙은 문명화와, 문명화는 식민화와 연동되어 있었다. 어떤 의미에서 신문명어는 이 과정을 매개하고 자연화했다.

다음으로 나는 이인직과 대조되는 또 다른 사례, 즉 한글과 국한문체, 한문이라는 다양한 서기체계를 가지고 작업했던 변영만의 어원학적 사고를 논했다. 근대 개념어에 대한 변영만의 생각은 “세계의 何國을 막론하

고 절대적의 純土語로만 조직된 국어는 없는 법이다……좀더 ‘어원학적(Etymologically)으로 此를 觀考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주장 속에 그 핵심이 담겨 있다. 일본의 근대 문학·사상을, 서양이라는 원천과의 모방적 관계(“개인적·민족적 파산상태”)로 일언이폐지(一言以蔽之)하거나 한국 한문학을 당송팔대가의 복제로서 통박하는 그의 관점은, 동서비교론과古今文學 비교론 속에서 사산되어 온 번역적 재현의 문제를 다시금 상기시킨다.

어떤 의미에서 일본의 근대 개념사 연구와 달리, 한국의 그것은 생산이나 변용보다는 식민화와 그것을 넘어서려는 순수한 언어≠순수한 민족어를 향한 救濟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한국의 근대 개념어는 번역적 재현의 문제보다는, 언어 침식의 문제와 더 깊은 관련을 가진 것처럼도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도 번역의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서 존재한다. 왜냐하면 근대 개념어 연구를 통해 우리는, 근현대 한국어가 지속적으로 갈망해 온 ‘순수 언어’pure language/reine Sprache의 꿈이 결코 한글 안에서는 달성될 수 없는 과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순수 언어’는 한국어 안에서가 아니라 그 밖-그러나 일본어라고도, 한문이라고도, 또 영어라고도 말할 수는 없는 장소에 존재한다. 나는 이 글에서 그러한 전통적 서기체계와 외부성의 개입을 한문맥의 근대라 불렀고, 여기에 구문맥(歐文脈)의 문제를 포함시켜 논했다. 순한글화와 한글로 사유하는 일이라는 과제는 개념의 차원에서는 결코 달성될 수 없는 꿈이며, 오히려 그것이 달성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사유는 그 근원을 상실한 채, 근원적 불가능성에 봉착하게 된다.

주제어 : 신문명어, 근대 개념어, 한문맥(漢文脈), 구문맥(歐文脈), 우리말로 철학하기, 순수언어, 식민미디어, 일신이서(一身二書), 어원학, 언어자연주의, 기원, 번역적 재현

Abstract

Modernization of the Context in Chinese Letters and Dream of Pure Language

—A Study on Korean Modern Conceptual Words—

Hwang, Ho-duk

Not only was the Chinese letters being hardly used by the people in Korea, but also there is few people who are able to read the Chinese writing. It might be not an erroneous idea that the écriture itself of Chinese writing is being out of the philological object. It is, however, certain that when using Sino-Korean words, the Chinese letters are the source of authority, being considered to be a superordinate language system. *The Preamble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s drawn up with a single sentence full of Chinese letters, symbolizes the order of a 'concept' constituting the thought of the present Korean has been formed by the vocabulary passed through China and (especially) Japan. For example, 82% of Sino-Korean words of Japanese origin, at the time of modernization formation, is a language which forms itself the order of thought and politics such as technical and academic terms, and abstract ideas in the world of thought and politics, according to a report on the vocabulary at that time. Such modern words were made, depending on the construction-ability of the Chinese letters.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origin (theory) demanded by the modern conceptual words and the matter of 'effects' in the modern space of

discourse by comparing the contrary works of In-Jik Lee and Young-Man Byeon, as two writers who considered modern conceptual words as new civilized ones. Firstly, by abstracting the new civilized words only from 『血의 淚』(Hyul-ei-Noo) written by In-Jik Lee, this study presented the possibility of predicting the narrative itself of the novel. The novel unfolds its space to Japan and then to United States through the series of new civilized words, and the series remind us of the channel of colonization. In the field of literature, the incorporation of colonization and imperialism was synchronized, being related with creation, education and criticism, and that was part of the process of the World History. In a sense, our 'maturity' in novels was liked to civilization and the civilization liked to colonization. The new civilized words, it also means modern conceptual words, at some extent, intermediated and naturalized the linking process.

And then, this study dealt with the etymological thinking of Young-Man Byeon, as an example contrast with In-Jik Lee, who worked with various systems of *écriture*, say, Hangeul (Korean letters), Korean letters with Chinese characters and Chinese letters also. He said, defining the modern conceptual words, "no country in the world has the national language composed of its pure words only…… it needs to think them more etymologically." His attitude in which the Japanese modern literature and thought have an imitative relation to the source of the West ("An individual and national state of bankruptcy) and Chinese classics in Korea is copying of the Eight Great Masters during Tang and Song dynasties in China(唐宋八大家) reminds us of the issue of the translational representation as having been scattered in the comparative theories of the East and the West, and the past and the

present.

The studies on the conceptual history in Korea have been rather connected, to some extent, to the relief which pursues pure language ≠ pure ethnic language, overcoming the colonization, than production and modification unlike the studies on the modern conceptual history in Japan. The modern conceptual words in Korea appears to have a more considerable relation with the issue of language erosion than the issue of translational representation. The translational issue is, however, existing as a material task also here, for the studies on modern conceptual words make us understand the dream of a pure language (reine Sprache), as desired eagerly by the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n language, which will never be achieved within Hangeul. The pure language is existent not inside the Korean language, but outside the language—it, however, exists in another space than Japanese, Chinese and English languages. In this study, such traditional écriture and outside intervention is called the modernization of the context in the Chinese writing, and, at the same time, issues of the European language are included for discussion. The task of using and thinking with the pure Korean language is a dream which will never be realized from the dimension of concept, and the moment we think the dream will come true rather brings about a fundamental impossibility, losing its origin.

Key words : New civilized words, Modern conceptual words, Context in Chinese letters(漢文脈), Context in European letters(歐文脈), Doing philosophy with our language, Pure language, Colonized media, Il Sin Yi Seo(一身二書, briefly put, it means 'one body with two styles of writing'),

이 논문은 2007년 9월 30일에 접수되어
2007년 10월 20일에 게재 확인되었음.